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탄소중립 2050 향한 기회와 도전, 그리고 미래 주제 발전방안·새만금 역할 등 논의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 열린다.

도는 탄소중립 2050을 향한 기회와 도전, 그리고 미래 주제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1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지사, 양종모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김철수 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장, 문승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일수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등 유관기관장을 비롯해 이중희 전북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관해 21일까지 열린다. 주제발표와 토론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 기회 주제’를 시작으로 남아공 덴마크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연사 7명과 새만금 수상형 태양광 실증 시스템 기술적 특징 패널 토론 등 국내연사 30명을 포함한 37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3개 주제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별도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주요사업인 그린수소,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산업정책 현황과 새만금 일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청사진을 소개



전북도는 탄소중립 2050을 향한 기회와 도전,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1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명한다.

더불어, 도는 향후 탄소중립 2050시대의 미래상을 제시해 대도시 소용과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17개 기업과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고성 등 도외 6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전시하고 기술을 홍보한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6개 기업이 참여해 새만금 시대의 현주소도 점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포럼은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됐던 만큼,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을 운영하며, 오프라인 참가자는 사전에 약제로 운영되고, 포럼 기간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완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양종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한국판 뉴딜의 테스트베드로서, 그린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탄소제로·스마트 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 K-뉴딜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각계 전문가, 기업인들과 힘을 모아 새만금에 신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 새만금과 전북도가 우리나라 신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이번 포럼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리기 위해 전북도가 나아가 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태문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국내외 석학들의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나눔 문화 확산·이웃사랑 실천 유공자 시상식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3개 기업·11명 개인에 표창패 수여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선 '희망2021 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이 20일 진행됐다.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과 박용훈 전

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유공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추진한 '희망2021 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나눔문화 확산 기여자와 현장 일선에서 배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주)신진에스엠,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 등 3개 기업과,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견인한 11명의 개인이 표창패를 받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와 기후 후 위기로 그 어느 해보다도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웃을 돕는데 따뜻한 마음을 모아 주신 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률 80% 돌파

전북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자 수가 143만 명을 넘기며 전 도민의 80% 이상이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20일 12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가 143만117명으로 도민의 80.03%에 해당하며, 이중 125만808명이 접종을 완료(89.7%)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접종대상 인구(16세 이상)의 91.8%(접종 완료 80.0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내 18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2차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금주 중 접종완료율이 인구대비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16세 이상 접종대상인구의 1차접종률이 90%를 넘어 매우 높은 예방접종 참여를 보이고 있으나 면역형성 인구를 최대한 확보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없이도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보유한 백신물량을 통해 당일 접종이 가

능하므로, 더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들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인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접종에 동참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길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이 접종 전반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종 후 모니터링 및 오접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제2차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전북도, 4대 육성전략 마련 2022~2024년까지 921억원 투입

전북도가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농촌관광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제2차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9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4대 육성전략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의 융복합 산업화, ▲위드코로나 맞춤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농촌관광이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의 융복합 산업화'는 자연환경, 역사 및 문

화유산 등을 활용해 농촌관광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는 전략이다.

대표 사례로는 한국전쟁 상처 돌고개 전투가 있었던 지역 역사를 모티브로 한 '순창 총영(피노) 마을의 서바이벌 게임'이 있다.

'위드 코로나 맞춤형 농촌관광'은 사람이 많은 유명 관광지 아닌 조용하고 여유있는 여행지를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를 겨냥한 전략이다.

대표 사례로 한적한 농촌의 마을길을 활용한 '남원 달오름 마을의 볼담길 걷기 프로그램'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은 원격근무 확대,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 단순 재택근무가 아닌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에서 힐링과 더불어, 일의 능률도 올릴 수 있는 '스마트 워케이션(work(일)+vacation(휴식)) 프로그램'이 있다.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농촌관광'은 농촌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문화 등을 체험하며, 농촌다움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도는 제1차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농촌주민의 역량을 높이고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 등 농촌관광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도는 제2차 계획을 농촌관광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 플랫폼 개발·강화에 집중해 오는 2024년까지 방문객 130만명 달성을 목표로 매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위한 발전방안 논의

전북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신변보호, 교육지원 및 정착지원을 위해 매년 2회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전북도교육청, 전북경찰청, 전북하나센터, 전주교통복지센터, 민간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해 전북도의 북한이탈주민 사업 현황을 보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체 명칭인 '하나민' 사용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도는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 용어의 '이탈'이라는 부정적 어감을 없애기 위해 지난 7월 도민제안 공모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하나민'으로 선정할 바 있다.

이후, 소관부처인 통일부 질의를 통해 현행 '북한이탈주민'과 '하나민'을 병행하는 것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유호상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대정부 건의안에서도 다뤄진 만큼 추이를 살펴보고, 도내 탈북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2022년도 전북하나센터 위탁법인 공모'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 기관별 보고사항을 다루며, 북한이탈주민의 폭넓은 지원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은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자 자랑스러운 전북도민이다"면서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이들의 희망이 비효율적인 제도와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절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모든 기관이 총출력 지원을 나서야 할 때"라며 협업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휴게실까지 가는데 차로 만나질... 환경미화원이 쉴 공간 전무'

최영심 도의원 "현재 점호지·미화 담당지역 약 10km떨어져 있는 곳 많아
과업지시서 허점 보완과 함께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휴게공간 마련해야"

업무시간 내내 야외에서 일하지만, 잠시 앉아 휴식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은 물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문제를 제기했다.

최영심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경우,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 운영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화를 담당하는 구역 인근에 샤워와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는 직영 운영과 달리, 위탁 운영되는 업체의 미화원은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다"며 실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현재 위탁업체의 경우, 점호지와 미화를 담당하는 지역이 약 10km(차로 약 25분)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다"며 "작업을 마친 노동자가 10km 떨어진 점호지로 돌아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경미화를 위탁한 업체에 내려보낸 과업지시서의 제37조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

해 대행구역 내 또는 대행구역 인근에 적절한 샤워장과 휴게실 등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위탁업체에서는 회사 내 공간을 마련해두고, 거리상 휴게가 불가능한 대행구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영심 의원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게공간은 절실하고, 필수적이다"라며 "과업지시서의 허점을 보완은 물론, 지자체가 위탁업체 미화원의 관할지역 내 휴게공간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직영과 위탁 운영의 차이를 떠나 어떤 미화원이든 자신이 일하는 구역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일을 마친 후에는 깨끗이 샤워하고 집으로 향할 수 있는 상시적인 근무 환경 마련을 마련하거나, 인근 샤워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유호상 기자

LX공사, 직무 관련 학회 임원 모두 탈퇴키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공사 임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직무 관련 학회 임원을 모두 탈퇴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LX공사의 임직원은 그동안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관한 순수한 학술활동을 해오다 협회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은 임원으로 등재했으나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공사 임원과 민간업체의 용역수주 연계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유관 학회 임원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원실의 지적을 수용해 관련 학회 임원 활동을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추! 전주매일 창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님의 자산은 안/전/해야 합니다.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지금을
보장합니다.

우체국예금보통예금관련 법률 제3조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

당신을 우체국 FC(보험설계사)로 모십니다

"행복의 권선신호를 우리 우체국에서...!"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남원우체국 063) 630-3131